주님의교회

#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통권 제 118호_발행일 : 2005년 3월 6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2005년 교회표어 : 꿈을 꾸고 이상을 보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_02-416-5181_www.pcltv.org
기사제보 : 함즐함울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mobile: 011-466-4736 email: chhylee@korea.com

## 전도 부흥회, 이번주 화요일 부터 3일동안 열려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사람들" 이라는 주제로 교회 비전에 맞춰 준비한 전도부흥회가 드디어 이번주 화요일(8일)부터 목요일(10일)까지 3일간 저녁 집회로만 열리게 된다. 이번 전도부흥회 강사로 오게 되는 채수권 목사는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에서 학부를 마치고,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리고 채목사는 온누리교회 부목사와 Willow Creek Association 국제 사역부 아시아 대표를 거쳐 현재 시카고 안디옥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이번 전도부흥회 기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게 될 성경 말씀과 제목은 다음과 같다.

8일(화) "웰빙 시대의 전도자" (열왕기하 7:3-9),
9일(수) "다리미와 실크 블라우스" (누가복음 15:11-32),
10일(목) "소문난 잔치집" (사도행전 2:42-47)

이번 전도 부흥회를 통해 복음을 삶 속에서 관계와 생활을 통해 전도하는 '생활전도' 개념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 실제적인 방법론과 함께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데 구체적인 실제적 방법을 몰랐거나 전도의 이유를 깨닫지 못했던 모든 분들에게 이번 전도 부흥회는 좋은 깨달음의 기회가 될 것이다.

## 사역박람회, 진정한 꿈의 시작

### 이번주일까지 계속 열려...

2005사역박람회가 자원봉사연결팀의 주관으로 오늘까지 오전8:30부터 오후1:30까지 1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사역박람회는 사역에는 관심이 있으나 구체적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마음이 있어도 어떻게 사역을 해야할지 알지 못하고 있는 교우들을 돕기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사역박람회 브로셔는 제작되어 이미 지난주일에 주보와 함께 배부되었다. 이 브로셔는 교회의 다양한 사역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홍보를 주목적으로 한다. 주일에 신청한 결과는 주중에 부서장 및 담당자를 통하여 받게 된다. 만일 기존 사역부서외에 창의적인 사역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자원봉사연결팀에게 알려주면 새로운 사역의 장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주일에 이어 이번 주일에도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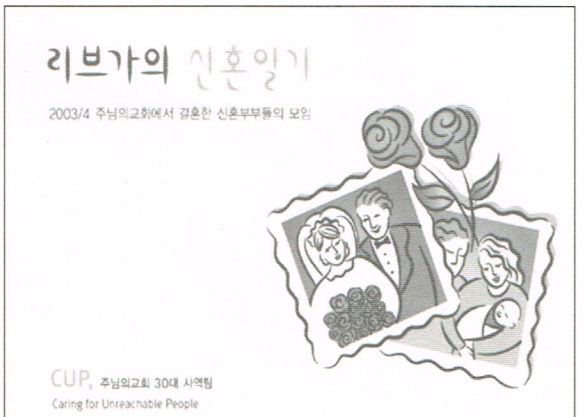
## 구역 이끄미 모임, 지난 수요일부터 다시 시작

긴 겨울 방학을 마치고 첫번째 구역지도자 이끄미 모임이 3월2일(수)오후8:30에 지하 찬양 연습실에서 있었다. 이인호 목사의 인도로 2005년 상반기 구역모임에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2005년 첫 구역모임은 3월4일(금)에 이미 시작되었는데 금번 학기는 특별히 바울서신중 에베소서 말씀 나눔을 통해 구역모임이 이루어진다.
다음 주일 구역 모임은 전도 부흥회 관계로 쉬게되고 그 다음주부터 계속되게 된다.
에베소서는 예수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와 우리의 삶에 충만하시다는 중심사상을 가지고있다.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개인과 세계는 분열과 분리 그리고 파괴만 있다는 것이다.
에베소서는 교회 공동체에대한 탁월한 교훈을 주는데, 특별히 교회의 지상 과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화해의 사명을 위한 그리스도의 도구요, 몸으로서의 사명임을 명확하게 확인시켜준다.
이런 바울의 편지와 한학기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기쁨과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이 편지를 읽으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발견해 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1학기 구역모임의 실천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양" 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요10:3) 매일 기도한다.
2. 각 구역원들의 근황을 정확히 파악한다.
3. "길잃은 양" 을 찾는다.
4. 구역모임 참석률 35%를 달성한다.
5. "한 구역 한 사역" 을 실천한다.
6. 금번 학기동안 구역을 배가 번식한다.
올해 상반기 구역모임이 주님의 은혜 아래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 '리브가의 신혼일기' 에 초대합니다

30CUP사역 팀에서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주님의 교회에서 결혼한 신혼부부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격려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가고, 아이를 낳으며 부모가 되어져가는 어쩌면 가장 바쁘게 살아가는 때가 바로 30대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리브가의 신혼일기' 는 이런 바쁜 생활 속에서 잠깐 멈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새로이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을 통해 더욱 풍성한 만남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바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일시 : 2005년 3월 6일 (오늘) 오후 5시**
**장소 : 주님의교회 3층 소년부실**



## "7시간의 낭만 : 샬롬동계대학"

2월 27일, 3부 샬롬찬양대는 샬롬동계대학이라는 행사를 가졌다. 예배가 끝난후 정규 연습시간부터 저녁 8:30까지, 7시간동안 전 대원이 모여 서로간의 친교는 물론, 음악이론과 교양강좌에 이르기까지, 매주 연습시간만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귀한 시간을 서로 나눈 것이다. 예년에 매년 있어왔던 수련회를 대신한 이번의 샬롬동계대학은, 모든 대원이 참여할 수 있는 주일 시간을 콤팩트하게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기획되었다. '7시간의 낭만:샬롬동계대학' 이라는 슬로건처럼, 샬롬찬양대원 모두는 다시 학창 시절 캠퍼스로 돌아간 듯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개회예배로 1교시를 시작한 행사는, 2교시는 지휘자님의 합창실전 강의로, 3교시는 미술/사진/컴퓨터 등 각자 관심분야의 교양선택강좌를 들었으며, 특히 강사진은 대원중 화가/사진작가/컴퓨터음악가께서 맡아주셨다. 4교시의 음악이론(각자의 필요에 따라 초/중/고급 중 선택)과 5교시의 전공필수(파트별발성) 강좌는 찬양을 통해 주님을 높이기 원하는 우리 샬롬찬양대원들의 음악지식을 더욱 살찌우게하는 시간이었다. 각 파트별 나눔의 시간과 저녁식사, 또 2월 생일축하와 '04년 하반기이후 신입대원환영회 등 행사의 후반부는 친교와 오락으로 이루어졌으며, 순서를 마무리하는 감사의 기도를 통해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돌리며 '05 샬롬동계대학을 마쳤다. 내년에는 더 많은 주님의교회 교우들이 샬롬찬양대에서 같은 기쁨을 누리길 소망해본다.

## '방과후 학교' 를 알리기 위한 젤리 만들기와 나누기'

오늘 오전 10시30분부터 1층 로비와 소예배실에서는 방과후 학교의 미술반 학생들이 주님의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젤리를 나눠주는 행사가 열린다. 전날인 토요일(3월5일), 방과후 학교, 미술반 학생들이 직접 만든 300여개의 젤리를 다음날인 오늘, 중·고등부 예배시간이 끝난 직후 친구들에게 나눠 주면서 방과후 학교를 알리고자 하는 행사이다. 관심이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 드린다.

## '중보기도사역 발대식'

그 동안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중보기도사역을 해왔던 중보기도사역팀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한다. 오늘 예배시간에 중보기도사역을 소개하는 영상을 상영하고, 사역자들이 교인들앞에서 사역에 헌신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늘부터 모든 교인들은 중보기도사역팀에 기도를 부탁할 수 있다. 중보기도사역팀은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4회에 걸친 중보기도학교를 수료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회 6층에 있는 중보기도사역 전용실에서 매일 6시간 이상 교회와 교인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

### ※ 중보기도, 이렇게 부탁하세요.

1. 1층 로비와 엘리베이터 앞에 중보기도함이 있습니다. 기도카드를 적으셔서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면, 사역자들이 매일 카드를 확인하여, 6층 기도실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2. 교회 홈페이지(www.pcltv.org)에 있는 중보기도 배너를 클릭하셔서 중보기도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3. 기도제목 중에서 기한이 분명하거나 긴급한 기도는 1달, 일반적인 기도제목은 3달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맡기시기 원하시는 분은 다시 카드를 작성해주세요.

## 호산나수련회 메시지, 찬양의 본질을 잊지말기를

호산나 찬양대 수련회는 1부 예배 후 교회 5층 연습실에서 평소의 찬양연습을 끝내고, 10시 30분에 우동윤 목사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오후 3시 30분 마칠 때까지 대원 60명이 참여했다.

우동윤 목사는 시편 67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와 악기들로 선포하는데,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행위를 노래하는 것이며, 찬양자의 외적 태도는 즐겁게 힘껏, 크게 찬양하는 것이고, 내적 태도는 신령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함을 강조했다. 찬양대원으로서 찬양할 때는 발성과 음정 및 감정 표현 등 음악성에 유념하고 집중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을 잊지 말자는 권면의 말씀이었다.

오후시간부터는 정신여고 음악실에서 박영주 지휘자의 음악교육시간으로 시작했다. 작년 수련회 때 꽤나 어려운 내용이었던 악보 보는법(음악부호, 조표 등)과 발성법을 대부분의 대원이 마스터한 까닭에 이번에는 가벼운 기분으로 평소 접할 기회가 적은 외국 찬양대의 찬양곡을 음악실에 갖춰진 영상시스템과 인터넷을 통하여 여러곡 들었다. 특히 맹인 가수 레이찰스(정명훈 지휘)는 모두에게 감명을 주었다. 역사적으로 찬양에서 음악성과 신앙성의 강조가 서로 번갈아 강조돼왔으며 찬양대원은 찬양이 본업이고 본업(생업)은 부업인 것 같이 하여 신앙심을 온전히 음악적으로 표현해야한다는 지휘자의 특별한 주문이 있었다.

다음은 발성이 좋고 음량이 풍부한 베이스의 김덕기 집사의 인도로 찬송곡-늘 들어도 감명깊고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곳으로 선정 5곡을 전원이 합창했다. 찬양 중에 음악위원장 최창섭 장로가 방문해 주었다. 호산나 대원은 1부 예배를 담당하므로 새벽잠을 설치고 오후시간에는 대부분 아주 피로한 상태였으므로 격려차 수련회 자리에 함께해 주었다. 떠나기 전에 마태복음 20장 36~37절의 말씀으로 기독교인으로서 말조심의 생활화를 당부하였다.

어떤 사실을 타인에게 전할 때는 왜곡하지말고 와전하지 말아야한다. 본인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실은 타인에게 말하지 않는 소극적 방법을 취하거나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고 타인에게 말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쓰자고 잠언 10장 19절과 29장 20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당부하였다.

마지막 시간은 부정희 대장의 인도로 개인 및 조별 퀴즈 대항으로 진행되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모두 피곤하였지만 대장의 뛰어난 유머감각과 재담으로 퀴즈 문제에 집중하며 한 문제라도 더 풀려고 애썼다. 조별로 넌센스 퀴즈를 풀려고 대원간에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해답이 나올 경우는 웃음과 아하 그렇구나 하는 감탄사가 절로 튀어나왔다. 가장 잘 맞춘 우수팀 6명과 2등 10명을 선정하여 상품도 증정하였다.

## 방과후 학교 교사 수련회

지난 월요일(2월28일), 저녁8시부터 다음날 새벽4시30분까지 방과후 학교 교사수련회가 유아부실에서 열렸다. 찬양과 기도로 시작한 자리에서 권오승 장로는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이며, 앞으로 더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덤' 이라는 마음으로 감사하자는 뜻을 전하였다.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 끝난 후 간단한 야식을 먹고, 방과후 학교가 시작 될 날짜조정과 과목 시간표와 장소, 방과후 학교를 지칭하는 이름 정하기 등에 대해 의논하였다. 방과후 학교는 새 학기가 시작된 청소년들에게 학교 적응기간을 더 주기 위해 3월 둘째 주인 12일에 입학식을 하기로 하였다. 수업은 토요일 2시부터 6시까지 수련실에서 열릴 예정이며, 방과후 학교의 이름을 정하는 문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짓도록 하기로 하였다. 회의가 끝난 후 새벽 두시부터는 교사들 각자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서로의 개인적인 문제를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리고, 축복을 받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방과후 학교는 중고등학생이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방과후 학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이종은 권사(011-9638-8719)에게 하면 된다.

## 2005년 1학기 양육클래스 안내

| | 주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
| 오 전<br>10:30<br>~<br>12:00 | • 새가족모임<br>(우동윤/새가족사역팀) | • 제자의삶 화요반(김성관)<br>• 하나님의끝없는 짝사랑-호세아서 (홍민기)<br>• 믿음의 여인들(이희숙) | | • 리더훈련 목요반(우동윤)<br>• 여호수아(박의일)<br>• 복음서(이 호)<br>• 예레미야(김현령) | • 제2이사야(이인호)<br>• 나의 성지를 찾아서<br>(이창현)<br>• 일본어배우기(신영숙) |
| 오 후<br>1:30<br>~<br>3:00 | • 리더훈련주일반(김성관)<br>• 제자의삶 주일반(정영환)<br>• 젊은 어머니학교(문희곤)<br>• 세계흐름속의 한국사회 상황(이을형)<br>• 영어성경과 그리스도인의 자존감(김영숙)<br>• 제2의 인생과 그리스도인(남장희)<br>• 중국어 알아가기 (김삼화)<br>• 사진학교(임근원) | • 그리스도의 정신건강<br>(김광일, 오후1~3시)<br>• 말씀서예<br>(박재현, 오후2~4시) | | | 토요일<br>• 예레미야<br>(김현령, 오후3시) |
| 저 녁<br>7:30<br>~<br>9:00 | | • 리더훈련 화요반(윤은성)<br>• 영어성경공부(나현수)<br>• 선교알아가기(권순영)<br>• 구역장훈련 | (문동학/이인호) | • 요한계시록(정희성) | • 중보기도세미나<br>(4월 15일~16일)<br>(정영환) |

## 열매맺는 삶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정기적인 말씀연구와 영적 양육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들을 탐스럽게 맺게 될 것입니다.
2005년 1학기 양육과정에 성도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100과정

#### 새가족모임(101 필수)

시간 : 주일 오전 10:30, 오후 12:30 / 강사 : 새가족사역팀
주님의교회 새가족이 되신 분들을 위한 성경공부 과정으로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모든 분들이 반드시 참여하셔야 할 모임입니다.

### 200과정

#### 제자의 삶(201 필수)

시간 및 강사 : 주일 오후 1:30(정영환목사) / 화요일 오전 10시(김성관목사)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삶의 변화를 위한 양육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적 습관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을 드립니다. 필수과정으로 주님의 교회 교인이라면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 젊은 어머니학교(208)

시간 : 주일 오후 1:30 / 강사 : 문희곤목사, 김혜경사모
예수전도단 대표인 문희곤목사와 김혜경사모가 인도하는 이 강좌는 어머니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앎으로써 영적으로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며, 어머니됨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정립하여 줄 것입니다.

#### 영어성경과 그리스도인의 자존감(213)

시간 : 주일 오후 1:00 / 강사 : 김영숙권사
경원대학교 피아노학과 교수인 김영숙권사와 함께 영어성경을 공부하며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자존감의 위기, 상실 및 회복에 대하여 함께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 제2의 인생과 그리스도인(214)

시간 : 주일 오후 1:00 / 강사 : 남장희집사
정년퇴직(조기퇴직)을 하거나 정년을 앞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도록 인도하시는가에 대해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 세계의 흐름 속의 한국사회상황(217)

시간 : 주일 오후 1:30 / 강사 : 이을형장로
숭실대학교 법과대학장과 21세기정책연구회 대표를 지낸 이을형장로와 함께 세계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의 한국사회상황을 분석해봄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시대적 사명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일본어배우기(219)

시간 : 금요일 오전 10:30 / 강사 : 신영숙집사, 이시야마 유리(연세어학당 일본어강사, 현 미8군 내 메릴랜드대학 일본어강사, 일본어학교 강사)
일본어를 모르는 분들도 부담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본어 강좌입니다. 일본어와 함께 일본어 성경도 배우고 일본선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모임입니다.

#### 그리스도인의 정신건강 II(210)

시간 : 화요일 오후 1:00 / 강사 : 김광일집사
연세유앤김신경정신과 원장이며 연세의대 정신과학교실 외래교수인 김광일집사에게 배우는 크리스챤 정신 건강학입니다. 전인적 건강생활을 유지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것입니다.

#### 중국어알아가기(220)

시간 : 주일 오후 1:30 / 강사 : 김삼화집사
중국동포로 서울대에서 교육학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삼화집사님과 함께 중국어를 배우면서 중국문화와 중국교회에 대한 정보를 얻고 중국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 사진학교(221)

시간 : 주일 오후 1:30 / 강사 : 임근원집사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교수인 임근원집사와 함께 사진에 대한 기초지식과 전문지식을 배우고 실습도 해보는 유익한 시간입니다.

### 300과정

#### 리더훈련(301 필수-귀납적 성경연구와 소그룹인도법)

시간 및 강사 : 주일 오후 1:30(김성관목사) / 화요일 오후 7:30(윤은성목사) / 목요일 오전 10:00(우동윤목사)
성경을 귀납적으로 읽는 방법과 소그룹을 인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구역장이나 기타 소그룹성경공부를 인도하는 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제자훈련을 수료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교알아가기(305)

시간 : 화요일 오후 7:30 / 강사 : 권순영집사
목요모임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권순영집사는 90년 예수전도단 Be-E DTS훈련을 마친후 93년부터 96년까지 러시아 코스트로바 도시건설 책임자로 있으면서 현장에서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하였었고 이후로도 세계선교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사역해왔습니다. 함께 선교의 비전을 품어봅시다.

## 가정사역팀, 1박 2일의 수련회

2004년 11월부터 공식적으로 모이기 시작한 주님의 교회 〈가정사역팀〉은 정희성 목사를 리더로 하여 현재 9가정이 모여 매주 금요일에 구역으로 모여 공부하고 있다.

지난 2월 26-27일 1박2일간 수련회를 양평대명콘도에서 가졌다. 오후 5시부터 모여, 맛난 저녁을 해 먹고, 장신대 교수인 홍인종 목사를 강사로 4시간에 걸친 강의 및 질의 시간을 가졌다. 팀원 대부분이 '이 사역을 내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했었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곧 사역을 향한 소명의 출발점이다"는 강의에 힘을 얻고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곱 가정 중 한 가정이 이혼하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린 귀한 시간이 되었다. 한 개인보다는 가정을 온전히 세운다는 관점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족을 보고 더 건강한 관계성을 가진 가정으로 이끄는 사역을 가정사역의 핵심으로 홍인종 목사는 강조했다. 그러므로 가정사역은 가족전체의 그림을 보며, 사후 치료적 차원보다 가족생활주기(자녀의 연령 및 학령)에 따른 예방적 교육적 차원을 강조한다. 가정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현재 우리들로선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시할것을 권유해 주셨다. 현재, 9가정이 같이 모여 공부하고 있지만, 점점 〈아버지 학교〉나,〈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등 각종 프로그램을 경험하신 분이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교우들을 대상으로 팀원들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 해의 가정사역팀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상반기엔, 구역으로 모여 계속적인 가정사역 관련 교재를 공부하면서 구성원의 전문화를 위한 준비를 한다. 그리고 동시에 함께 할 동역자를 찾는 일이다. 둘째, 여름휴가기간 중에 교인 중 청소년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친밀한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갖고, 마지막으로, 늦가을에 교회 내에서 〈아버지학교〉프로그램을 전교인 대상으로 자체 운영할 계획이다. 함께 했던 1박 2일이 팀원을 더욱 하나되게 했으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한 귀한 출발점이 되었다. 우리가 모두 완벽한 가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가정을 꿈꾸며 이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 30대 사역 예배, 30 CUP WORSHIP SERVICE

30대 사역팀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30대 사역의 중요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4월 17일부터 매월 셋째 주 오후 5시 30분에 열리는 30대 사역 예배, 30 CUP WORSHIP SERVICE이다.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불가피한 여러 가지 사정들로 적극적인 신앙생활에 동참하지 못했던 모든 성도들이 초대의 대상이다. 주일 오후 5시 30분 중예배실에서 진행될 예배는 30CUP 찬양팀의 찬양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전문인들을 초대해 삶의 현장 이야기는 물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역경과 그것을 딛고 일어선 승리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강의 후에는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된다. 찬양팀과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진실한 기도회로 인도할 것이다. 4월 17일 첫 초대 손님으로는 2000년 초대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등을 역임한 강지원 변호사가 초대될 것이다.

30대 사역팀, 30CUP은 주님의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1000여명의 30대 미/기혼 성도들은 물론, 30대 사역팀, 30CUP은 주님의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1000여명의 30대 미/기혼 성도들은 물론,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초대해서 찬양과 나눔과 기도가 있는 예배로 만들어 갈 것이다.

## 할렐루야 찬양팀 예수원에서 찬양예배인도

지난 2월 15일(화) 수요성경공부시간 찬양으로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팀이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서 찬양집회를 가졌다. 예수원은 고 대천덕 신부님이 노동과 기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1965년에 가족들과 신학교 학생들과 교인 그리고 건축노동자로서 함께 일하던 형제자매들과 함께 설립한 신앙공동체이다. 예수원의 기본 일과는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다"라는 성(聖)베네딕 수사장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하루 세 차례 예배와 노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특별히 예수원에서는 하루 세 차례 삼종(三鐘)이 있다. 삼종이 시작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침묵으로 기도를 드린다. 삼종은 매일 아침 6시, 정오 12시, 저녁 6시에 있으며, 예수원의 중요한 일과다. 또한 예배도 하루에 세 번 드린다. 6시에 삼종으로 시작하는 아침 예배를 조도라고 하고, 12시 삼종으로 여는 예배가 대도이고, 저녁예배(만도)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30분에 시작하며, 매일 다른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월요일 은 중보기도(매일 정오에 드리는 중보기도와 구분됨), 화요일은 찬양예배, 수요 일은 대만도 혹은 강의, 목요일은 은사예배(몸 섬김의 밤), 금요일은 구역예배, 토요일은 감사예배로 드리고 있다. 지난 2월 15일 화요일에 드리는 만도 시간에 주님의교회 할렐루야 찬양팀의 주관으로 찬양예배를 드렸다. 예수원에서 특별히 어느 특정 교단의 어느 한 교회가 와서 저녁예배를 인도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주님의교회 할렐루야 찬양팀에 시간을 주셔서 찬양으로 예배를 드렸다. 40센티의 눈이 쌓인 완전한 산골짜기에서 기도와 노동으로 헌신한 가족공동체가 한자리에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는 도심지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감동과 은혜가 있었다. 할렐루야 찬양팀의 찬양과 이호목사의 말씀 그리고 최창섭 음악위원장의 간증으로 예수원에 있는 분들과 방문한 모든 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눈 귀한 시간이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특별히 북한과 전세계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예수원과 주님의교회가 이번 찬양예배를 통해 교제하며 함께 주님의 길을 나아가는 동역과 협력이라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아래 사진은 나사렛 예배실에서 찬양예배를 인도하는 할렐루야 찬양팀의 모습)

## 故 정재경 장로를 하나님 품에 떠나 보내며

본 기사는 故 정재경 장로의 유족 이정원 권사의 기고문으로 지면의 제약상 전문을 수록하진 못하고 부분을 발췌하여 싣게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진실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오늘 아침에 우리 가슴에 가득하게 자리잡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저희들의 심령에 감사의 불길이 활활 타 오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부족 속에서나, 육신의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2004년 11월21일 추수감사절 주일 아침 1부 예배 시 정재경 장로의 대표기도문 중에서)

이 때만 해도 기운은 좀 없는 듯 했으나 장로님의 모습은 건강한 모습이었다.

2004년12월 6일 건강한 모습으로 아산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치료가 시작되면서 매일 수척해지며 점점 기운이 없어져갔고 2005년1월19일 2차 색전술을 위하여 입원하였을 때는 많이 힘들어했다.

2월16일 3차 색전술을 위하여 입원하려 했으나 감당하기에 너무 기운이 없어서 3월12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장로님은 2월 24일 목요일 새벽 잠자듯이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다. 10분 만에 딸과 119 구조대가 도착하여 병원으로 옮겨 심폐소생술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해, 주변에 있던 목사님과 딸들과 사위, 장로님들, 집사님들, 친구분들과 식구들이 모두 모여 빙 둘러서서 기도했다. 그러나 장로님과 남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우리는 임종예배를 드렸다. 이후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교회장으로 할 것이니 모든 것을 교회에 맡기라고 말씀해 주셨다. 부족한 정 장로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께 너무나 감사했다.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 조를 짜 빈틈 없이 모든 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심 성의껏 살펴주셨다.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는 감사가 뼈속까지 사무쳤다. 발인 예배때 문동학 목사님께서는 지금까지는 곁에 있어야만, 만질 수도 볼 수도 말할 수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곁에 없어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장로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셨다. 큰 위로가 되었다. 하관예식에서 문동학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을 보십시요. 지금, 하늘을 바라보십시요" 우리는 모두 하늘을 바라보았다. 파아란 하늘이 구름 한점 없는 파아란 하늘이 눈 안에 들어왔다.

"지금 장로님께서는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잠시라도 틈만 나면 좀 더 잘 해드리지 못 했던 생각들로 가슴이 저려온다. 이럴때면 문동학 목사님의 말씀대로 하늘을 쳐다본다.

고통과 괴로움 없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함께 있을 정 장로를 생각하면 다시금 힘이 솟는다.